

碩士學位論文

현대 남성패션에 표현된  
메트로섹슈얼(Metrosexual) 디자인의  
조형적 특성



濟州大學校 大學院

衣類學科

高 大 協

2005年 2月

# 현대 남성패션에 표현된 메트로섹슈얼(Metrosexual) 디자인의 조형적 특성

指導教授 張 愛 蘭

高 大 協

이 論文을 理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2004年 12月

高大協의 理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_\_\_\_\_印

委 員\_\_\_\_\_印

委 員\_\_\_\_\_印

濟州大學校 大學院

2004年 12月

# 목 차

국문초록

표목차

그림목차

|                            |    |
|----------------------------|----|
| I. 서론                      | 1  |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  |
| 2. 연구내용 및 방법               | 5  |
| II. 이론적 배경                 | 6  |
| 1. 메트로섹슈얼(Metrosexual)의 개념 | 6  |
| 2. 메트로섹슈얼의 출현배경            | 8  |
| 3. 메트로섹슈얼 디자인의 정의 및 조형적 특성 | 10 |
| 1) 메트로섹슈얼 디자인의 정의          | 10 |
| (1) 실루엣                    | 10 |
| (2) 색상                     | 12 |
| (3) 소재                     | 14 |
| (4) 기타                     | 15 |
| 2) 메트로섹슈얼 디자인의 조형적 특성      | 17 |
| (1) 성의 해체성                 | 17 |
| (2) 관능성                    | 19 |
| (3) 절충성                    | 21 |
| (4) 기능성                    | 22 |

|  |      |
|--|------|
| <b>Ⅲ. 현대 남성패션에 표현된 메트로섹슈얼 디자인의 조형적 특성 분석</b> | — 24 |
| 1. 성의 해체성                                    | 24   |
| 2. 관능성                                       | 28   |
| 3. 절충성                                       | 32   |
| 4. 기능성                                       | 36   |
| <b>Ⅳ. 결론 및 제언</b>                            | 41   |
| <b>참고문헌</b>                                  | 44   |
| <b>ABSTRACT</b>                              | 48   |

## 국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메트로섹슈얼의 개념을 규명한 후, 메트로섹슈얼의 출현배경 및 발생요인을 고찰하여 이를 중심으로 현대패션에 표현된 메트로섹슈얼 디자인의 정의를 재정립하고, 메트로섹슈얼 디자인을 분석·해석하여 조형적 특성을 제시함으로써 현대 남성패션을 이해함은 물론 남성복 디자인 개발 및 미래 남성복 변화양상을 예측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함이다.

먼저 사회문화적 측면에서의 메트로섹슈얼이란 남성이라는 성적 정체감은 뚜렷하면서 내면의 여성적인 취향과 감성도 편안하게 수용하며, 사회적 관계보다 먼저 나를 중시하는 자기중심주의가 강하여 자신을 위해 아낌없이 투자하는 남성들이 선호하는 이미지가 함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패션디자인 측면에서의 메트로섹슈얼은 성 정체성의 혼란, 기존 가치관의 붕괴, 신체적 이상미와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문화적 다원화, 개성추구, 감성시대의 도래로 인해 남성적인 기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여성적인 감성적 코드를 다양하고 과감하게 표출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꾸미는데 과감히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 새로운 남성성 이미지가 제기되면서 출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의 키워드인 메트로섹슈얼 디자인이란 인체의 곡선을 따라 흐르는 자연스러움과 여유로움을 느끼게 해주는 실루엣과 여성적인 이미지의 색상인 핑크, 옐로우 그린, 레드, 오렌지, 퍼플, 그리고 벨벳, 실크 등의 광택소재와 비치는 소재, 니트 및 레이스, 여성적 이미지의 꽃무늬·식물무늬, 남성적 이미지의 스트라이프 무늬의 혼합 등으로 구성되어 표현된 디자인이라고 정의 내리고자한다.

따라서 메트로섹슈얼 디자인의 정의를 바탕으로 성의 해체성, 관능성, 절충성, 기능성 등 조형적 특성을 유추하여 코드화한 다음, 메트로섹슈얼 디자인을 분석·해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성의 해체성은 각 문화 영역에서 시대적 구분이나 절대적 진리와 미를 추구한 가치체계 대신 다양성의 용납을 수용하고, 각 영역들은 독자성의 지향보다는 상호 침투라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포스트모더니즘 사회하의 모호함에 대한 일종의 문화적 저항현상인 탈문화를 의미한다. 이에 메트로섹슈얼 디자인에서의 성의 해체성이란 남녀의 이분법을 해체하여 여성적 이미지의 요소의 일부 혹은 전체를 남성패션에 도입한 경우로, x실루엣, 장식적 디테일(프릴, 러플, 코르사주 등), 화려한 색상, 신체의 곡선을 부드럽게 드러내주는 신축성 소재, 여성적 이미지의 무늬(꽃, 식물) 등을 사용하여 남성적 이미지와 여성적 이미지의 해체, 조합, 재구성을 통하여 남성 안에 내재된 여성성이 표현된 디자인을 코드화한 것이다.

둘째, 관능성은 자신의 성적 매력을 나타내려는 욕망이라 할 수 있다. 여성은 남성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남성의 응시 대상이라는 전통적인 관념이 파괴되면서 여성 또한 남성을 응시하는 주체가 되어 남성의 신체를 성적 대상화시켰다. 이것이 남성의 나르시시즘(narcissism)과 결합하여 관능성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메트로섹슈얼 디자인에서의 관능성이란 신체의 직접적 노출을 통해 신체의 관능적 부위를 강조하고 인체미를 표현하거나, 움직임에 따라 인체선이 드러나는 형태인 간접적 노출을 통해 은유나 암시, 연상 과정에서 시각적인 인지에 그치지 않고 관능적인 신체부위를 감지하여 형태를 연상하는 심리작용을 일으켜 결국 성적 연상을 이르게 되는 관능적인 느낌을 클리비지 룩과 비쳐보이는 소재(시폰, 망사, 레이스 등), 무봉제 팬티 등을 이용하여 표현된 디자인을 코드화한 것이다.

셋째, 절충성은 다양한 문화의 스타일들이 경계와 구분이 흐려지게 된 것을 의미한다기보다는 대조와 결합의 경계를 충분히 인식한 후 병치에서 오는 재치 있는 스타일의 혼합을 의미한다. 이에 메트로섹슈얼 디자인에서의 절충성이란 이질적 요소의 도입으로 조화되지 않는 대상이나 이미지의 병치, 전통적인 복식의 소재 대신 이질적인 소재의 사용, 하위문화와 고급문화의 경계를 해체하고 이들의 요소를 혼성·도치하여 풍부한 표현과 애매성이 강조된 것과 여성적 이미지와 남성적 이미지의 혼합으로 표현된 디자인을 코드화한 것이다.

넷째, 기능성이란 어떤 활동 분야에서 그 구성 성분이 하는 작용으로, 어떠한 작용을 하는가에 따라 그 의미하는 바가 다양하다. 협의로는 유용성,

합목적성, 편리와 관련되는 구조상의 명확한 표현인 물리적 기능만을 의미하며, 광의로는 심리적, 사회적, 문화적 기능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에 메트로섹슈얼 디자인에서의 기능성이란 단순하고 편안한 실루엣의 사용, 천연섬유와 인조섬유의 혼용 등의 물리적 기능뿐만 아니라 심리적, 사회적, 문화적 기능까지 포함된 편안함과 실용성을 인체의 곡선을 따라 흐르는 자연스럽고 여유로운 실루엣과 편안한 스타일, 신축성 있는 니트 및 스판 소재, 여성스러운 스타일의 토드백과 크로스 백 등으로 표현된 디자인을 코드화한 것이다.

이상과 같이 특히 메트로섹슈얼을 선호하는 남성들은 패션과 트렌드를 날카로운 시각으로 파악하고 또한 긍정적으로 자신을 표현할 줄 아는 스타일 메이커이자 새로운 문화의 흐름을 대변하는 주축이라 사려된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현대 남성들의 선호 이미지와 트렌드를 적극적으로 파악하여 현대 남성패션에 다양한 디자인을 제시하는 연구가 후속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사려된다.



Key words : 메트로섹슈얼, 메트로섹슈얼 디자인, 성의 해체성, 관능성, 절충성, 기능성

## 표 목 차

|                             |    |
|-----------------------------|----|
| <표 1> 연구모형                  | 5  |
| <표 2> 메트로섹슈얼 디자인의 조형적 요소    | 16 |
| <표 3> 메트로섹슈얼 디자인의 조형적 특성 분석 | 40 |





## 그림 목 차

|         |                         |    |
|---------|-------------------------|----|
| (그림 1)  | Fendi, 03 F/W           | 26 |
| (그림 2)  | Versus, 02 S/S          | 26 |
| (그림 3)  | Versus, 02 S/S          | 26 |
| (그림 4)  | Gianni Versace, 00 S/S  | 26 |
| (그림 5)  | Gucci, 02 F/W           | 26 |
| (그림 6)  | Gucci, 03 F/W           | 27 |
| (그림 7)  | John Preston, 02 F/W    | 27 |
| (그림 8)  | John Preston, 02 F/W    | 27 |
| (그림 9)  | Roberto Cavalli, 01 S/S | 27 |
| (그림 10) | Rocco Barocco, 02 S/S   | 27 |
| (그림 11) | Gianni Versace, 02 S/S  | 30 |
| (그림 12) | Gianni Versace, 00 S/S  | 30 |
| (그림 13) | Calvin Klein, 00 S/S    | 30 |
| (그림 14) | Calvin Klein, 03 S/S    | 30 |
| (그림 15) | Enrico Coveri, 02 S/S   | 30 |
| (그림 16) | Calvin Klein, 04 S/S    | 31 |
| (그림 17) | Calvin Klein, 04 S/S    | 31 |
| (그림 18) | Dolce & Gabbana, 04 S/S | 31 |
| (그림 19) | Fause Hatén, 02 S/S     | 31 |
| (그림 20) | Alan Truong, 01 S/S     | 31 |
| (그림 21) | Fendi, 02 F/W           | 34 |
| (그림 22) | Dolce & Gabbana, 00 S/S | 34 |
| (그림 23) | Versus, 02 F/W          | 34 |
| (그림 24) | Prada, 02 F/W           | 34 |
| (그림 25) | Cerruti, 01 F/W         | 34 |

|         |                         |    |
|---------|-------------------------|----|
| (그림 26) | Gianni Versace, 01 S/S  | 35 |
| (그림 27) | Gianni Versace, 00 S/S  | 35 |
| (그림 28) | Enrico Coveri, 02 S/S   | 35 |
| (그림 29) | Miu Miu, 04 F/W         | 35 |
| (그림 30) | Forum, 04 F/W           | 35 |
| (그림 31) | Gucci, 03 S/S           | 38 |
| (그림 32) | Miu Miu, 03 S/S         | 38 |
| (그림 33) | Miu Miu, 03 S/S         | 38 |
| (그림 34) | Dolce & Gabbana, 03 S/S | 38 |
| (그림 35) | Gianni Versace, 04 S/S  | 38 |
| (그림 36) | Ron and Ron, 04 S/S     | 39 |
| (그림 37) | Burberry, 04 F/W        | 39 |
| (그림 38) | Dolce & Gabbana, 03 S/S | 39 |
| (그림 39) | Dolce & Gabbana, 03 F/W | 39 |
| (그림 40) | Laura Biagiotti, 03 S/S | 39 |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0세기말부터 현대패션은 다양한 예술양식이 혼재된 양상으로 표현되고 있으므로 하나의 양식으로 설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다원주의적 측면에서의 해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즉 기존의 개념을 부정하고 전통을 배제하거나 파괴하기 위해 새로움을 추구하는 실험적인 디자인이 현대패션을 리드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예로 남성성과 여성성을 부정함으로써 성의 혼돈과 성의 부재를 표현하였고 극단적으로 상이한 요소들의 표현과 전통적인 미의 위계구조 파괴 등 모든 가치영역의 탈장르화 현상이 초래됨에서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키워드인 남성성 이미지를 살펴보면 19세기 남성중심주의의 산업사회는 남자다움과 가부장적인 이미지가 지배적이었으므로, 남성으로 하여금 보수적이고 엄격한 스타일의 패션을 수용하게 하였다.<sup>1)</sup> 그러나 1960년대 이후 여성들은 사회진출이 증가됨에 따라 경제적인 능력을 갖게 되고, 지금까지 가족 부양의 의무에 묶여 있던 남성들은 생활의 여유를 갖게 되었다. 남성들의 이러한 여유는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는 경향으로 나타나게 되었고, 내면의 감정표현을 솔직하게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또한 아름다움을 추구하기 위해 몸을 치장하거나 패션을 통해 자신을 과감하게 표현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더욱 가속화되어 메트로섹슈얼(Metrosexual)이란 사회현상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최근 부각되고 있는 메트로섹슈얼 현상은 남성의 라이프스타일을 설명해주는 가장 혁신적인 요인 중의 하나이며, 하나의 문화적 아우라(aura)를 형성하고 있다.<sup>2)</sup> 여기에서 메트로섹슈얼은 최근 남

---

1) 김윤경·이경희, “20세기 남성패션에 나타난 상징적 의미에 관한 연구”. 「복식」, Vol.52, No.4, 2002. p.52.

2) 권지은, “현대 남성패션에 나타난 메트로섹슈얼 현상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p.1.

성적 이미지를 대변하는 신조어로, 패션과 외모에 많은 관심을 보이는 남성을 일컫는 용어<sup>3)</sup>이다. 그러므로 메트로섹슈얼의 근본적 속성은 남성의 여성화 경향<sup>4)</sup>이라할 수 있다. 남성의 여성화 경향은 최근에 등장한 것이 아니라 과거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계속 존재해온 것이다. 예를 들면 르네상스, 바로크, 로코코 시대의 남성들은 여성이 가진 신체적인 특성이나 과도한 장식, 여성적인 경향을 표현하였다. 근래에 와서는 1967년 피코크 혁명<sup>5)</sup> 이후 남성복이 여성화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이후 등장한 여성화 경향의 표현양식인 유니섹스(unisex)<sup>6)</sup>, 앤드로지너스(androgynous)<sup>7)</sup>, 젠더리스(genderless)<sup>8)</sup>는 남성복이 여성화되는 것을 가속화시켰다. 위와 같은 여성화 경향을 메트로섹슈얼과 비교해보면 외형적인 면에서 여성적 이미지를 나타낸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내적인 면에서는 전혀 다른 특성을 가진다. 즉 유니섹스, 앤드로지너스, 젠더리스는 진정한 여성적 문화를 나타냈다고 보는 단지 외형적으로 여성의 스타일을 모방한 반면, 메트로섹슈얼은 남성들의 가치관과 진정한 남성상의 문화적 특징이 반영되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메트로섹슈얼은 남성이라는 성적 정체감이 뚜렷하면서 내면의 여성적인 감정도 편안하게 인정하며, 사회적 관계보다 나를 중시하는 자기중심주의가 강하여 자신에 아낌없이 투자하는 남성들을 의미하는 신조어라 사려된다. 그러나 최근 남성패션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남성복에

3) <http://100.naver.com/100.php?id=772622>

4) 권지은, op, cit, p.1.

5) 피코크 혁명(peacock revolution) : 1960년대 후기의 멘즈 패션에 커다란 영향을 준 혁신적인 사고방식. 원래는 미국의 뒤풍사 고문이었던 디히터박사에 의해서 1967년에 제창되었던 것으로, 남성도 더욱 복장에 개성을 도입하려는 사고방식이 기본으로 되어 있으며, 그것을 슷공작(peacock)에 비유한 것.

6) 유니섹스(unisex) : 의상이나 헤어스타일 등 여러 면에서 남성·여성의 구별이 없어진 것을 이르는 말. 원래는 1956년 미국의 성(性) 과학자 솔로킹의 저서 「미국의 성 혁명」에서 발간되었다. 그의 생각이 패션의 세계에까지 파급되었다고 할 수 있다.

7) 앤드로지너스(androgynous) : 앤드로지너스는 그리스어에서 유래된 단어로 앤드로스(andro)의 남자의 의미와 지나케아(gynacea)의 여자를 나타내며, 남자와 여자의 특성을 모두 소유하는 것을 뜻한다.

8) 젠더리스(genderless) : 남녀의 성을 무시하는 개념으로, 통합주의적, 남녀 평등자들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인성을 가리킬 때 자주 사용되는데, 자신을 성을 부정하지 않고 남성, 여성이 가지는 각각의 아름다움을 서로 교차시켜 새로운 감각을 나타낸 것이다. 젠더리스는 양성의 특징의 경합으로 자유로운 조화는 젠더리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

표현된 상징적 의미<sup>9)</sup>, 미적 이미지<sup>10)</sup>, 성적 이미지<sup>11)</sup>, 성의 해체 이미지<sup>12)</sup>, 성 정체성의 표현양상<sup>13)</sup>, 남성성에 대한 연구<sup>14)</sup>와 앤드로지너스<sup>15)16)</sup>, 젠더<sup>17)</sup>, 그리고 포스트모던 페미니즘<sup>18)</sup>, 패션에 나타난 'less'경향<sup>19)</sup>, 남성복식에 나타난 Borderless현상<sup>20)</sup>등 남성복의 여성화에 대한 현상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최근 남성패션을 대변해주는 메트로섹슈얼<sup>21)</sup>에 관한 연구도 사회문화적 출현배경에 주안점을 둔 현상 연구로, 표현양식에 대한 연구가 미비한 실정이고, 또한 남성패션을 표현하는 한 양식으로써의 메트로섹슈얼 디자인에 관한 개념 및 특성 연구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대 남성패션의 표현양식을 대변하는 신조어인 메트로섹슈얼의 개념을 규명한 후 메트로섹슈얼 디자인의 정의를 재정립하고, 메트로섹슈얼 디자인을 분석·해석하여 조형적 특성을 제시함으로써 현대 남성패션을 이해함은 물론 남성복 디자인 개발 및 미래 남성복 변화양상을 예측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9) 김윤경·이경희, op, cit.

10) 이민선, “권력과 남성 패션에 표현된 미적 이미지”, 『복식문화연구』, 제11권, 제2호, 2003.

11) 이민선, “남성패션에 표현된 성적 이미지에 관한 연구-19세기 중반 이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 Vol.6, No.6, 1999.

12) 김혜영·임수정, “현대 패션에 나타난 성의 해체 이미지에 관한 연구”, 『생활과학』, 제7호, 2004.

13) 송명진·채금석, “현대 남성 패션에 나타난 성 정체성의 표현 양상”, 『한국의류학회』, Vol.25, No.2, 2001.

14) 이민선, “가부장제도, 페미니즘, 포스트모던 페미니즘과 남성 패션에 표현된 남성성”, 『한국의류학회』, Vol.25, No.2, 2001.

15) 김경옥·금기숙, “현대패션에 나타난 앤드로지너스에 관한 연구”, 『복식』, Vol.36, 1998.

16) 권기영, “복식에 나타난 양성성의 상징적 의미 연구”, 『복식문화연구』, 제10권, 제6호, 2002.

17) 박미령, “현대 패션에 표현된 젠더(Gender)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산업학회지』, 제5권, 제4호, 2003.

18) 손미희, “Post Modern-Feminism의 문화현상과 패션”, 『복식』, Vol.36, 1998.

19) 김경아, “1990년대 패션에 나타난 'less'경향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20) 김병옥·이상례, “현대 남성복식에 나타난 Borderless현상”, 『한국의류산업학회지』, 제5권, 제5호, 2003.

21) 권지은, op, cit.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첫째,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메트로섹슈얼의 개념을 규명한 후,
- 둘째, 메트로섹슈얼의 출현배경 및 발생요인을 고찰하고,
- 셋째, 이를 중심으로 현대패션에 표현된 메트로섹슈얼 디자인의 정의를 재정립한다.
- 넷째, 메트로섹슈얼 디자인의 조형적 특성을 분석한 후 이를 본 연구의 분석틀로 코드화하고,
- 다섯째, 메트로섹슈얼 디자인의 코드화된 특성을 중심으로 2000년 이후 발표된 메트로섹슈얼 디자인 작품들을 선별한 후 실증적 방법을 통해서 분석·해석한다.



## 2. 연구내용 및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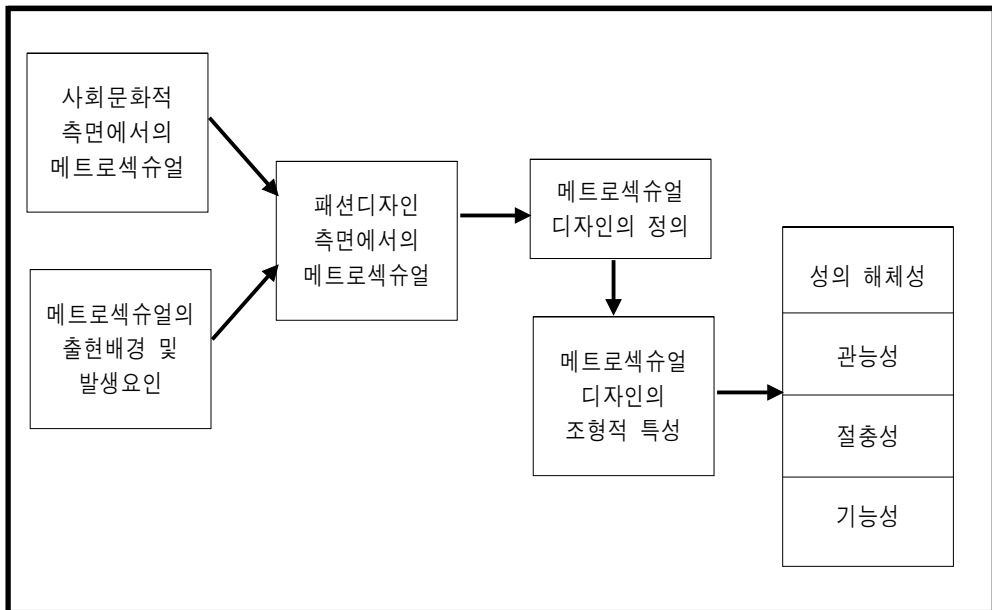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위에 제기된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론적 연구와 실증적 연구를 병행한다.

첫째, 이론적 연구로는 선행연구 및 문헌자료, 검증된 인터넷 사이트의 자료와 문화 평론가들의 글을 중심으로 메트로섹슈얼의 개념을 규명한 후, 메트로섹슈얼 디자인의 용어를 재정립한다. 그리고 메트로섹슈얼 디자인의 조형적 요소를 중심으로 특성을 유추한 후 이를 코드화한다.

둘째, 실증적 연구로 2000년 이후 패션전문잡지 「Collezioni」, 「Vogue」, 「Fashion News」와 검증된 인터넷 패션 사이트 등에서 현대 남성패션에 표현된 메트로섹슈얼 디자인 작품들을 선별하여 코드화된 조형적 특성을 중심으로 분석·해석한다.

본 논문의 연구모형은 <표 1>과 같다.

<표1> 연구모형



## II. 이론적 배경

### 1. 메트로섹슈얼(Metrosexual)의 개념

메트로섹슈얼이란 단어는 영국의 문화비평가 마크 심슨(Mark Simson)이 1994년 일간지 ‘인디펜던트(The Independent)’지에 기고한 글에서 처음 등장한 신조어으로써 외모를 중시하는 젊은 남성들의 새로운 변화를 빗대어 사용한 것이다.<sup>22)</sup> 후에 이 단어는 옵저버(The Observer), 헤럴드(The Herald), 맥클린(Maclean's magazine)과 같은 잡지에 의해 전파되면서, 스타일에 남다른 관심을 가진 남성들을 지칭하는 용어로 정착되었다.<sup>23)</sup>

메트로섹슈얼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메트로섹슈얼(Metrosexual)은 Metropolis와 sexual의 합성어이다. Metropolis는 ‘대도시, 중심지, 수도’를 뜻하고, sexual은 ‘성, 성에 관한, 성적인’을 의미한다.<sup>24)</sup> 그러므로 두 단어의 합성어인 메트로섹슈얼은 대도시에서 생활하는 새로운 성(性)을 의미 한다.<sup>25)</sup> 그렇다고 메트로섹슈얼이 성과 직접 관계가 있다는 것은 아니다. 즉 유럽의 광고대행사 Euro RSCG에 의하면 “그들이 대도시나 그 주변에 밀집해 있다는 점에서 ‘metro’이고, 무기력하거나 나약하진 않지만 자신의 여성스러운 면에 대해 편하게 느낀다는 점에서 ‘sexual’이라는 말이 쓰였다는 점”<sup>26)</sup>에서 알 수 있다.

마크 심슨은 인터넷 미디어인 살롱(www.salon.com)에 실린 ‘메트로섹슈얼을 만나자(Meet Metrosexual)’라는 칼럼에서 메트로섹슈얼을 초호화 상점과 클럽, 피트니스 클럽, 고급미용실과 뷰티숍, 분위기 좋은 카페 등이 몰려 있는 대도시에서 살면서 어느 정도의 경제력을 가진 젊은 남자로 묘사하고 있다.<sup>27)</sup> 그리고 Euro RSCG는 메트로섹슈얼을 남이 알든 모르든 패션과 음

22) 박정현, “메트로섹슈얼”, LG경제연구원.

23) <http://wordspy.com/words/metrosexual.asp>.

24) Encarta Dictionary.

25) 권지은, op, cit, p.8.

26) 파리 AFP=연합뉴스, 2003년 12월 9일.

27) <http://salon.com/ent/feature/2002/07/22/metrosexual/>



식, 몇 부리기에 대해 잘 알고 신경 쓰는 솔직한 현대 남성이라고 정의하였으며, Euro RSCG의 마리안 솔즈먼(Marian Salzman) 최고전략책임자는 “1990년대 여성들은 남성과의 평등을 이루기 위해 싸워야 했지만 현재의 남성들은 진정한 남성상을 잃지 않으면서 여성의 영역을 탐색하는 용기를 찾고 있다”라고 분석하였다. 이들은 명성과 명예보다 사랑과 가족, 우정을 원하고 사랑하는 여성과 함께 지내며 건강하고 행복한 자녀 갖기를 원하며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고 몇 부리기를 좋아한다. 이런 경향은 바로 화장품과 최고의 양복을 구입하고, 맥주 대신 와인을 고르며 머리를 손질하고 손톱에 매니큐어를 바르는 등 메트로섹슈얼로 표현되고 있다.<sup>28)</sup>

요약해보면 메트로섹슈얼은 남성과 여성의 역할 경계가 점차 모호해지는 변화된 사회상이 반영된 것<sup>29)</sup>이라 할 수 있으며, 동성애자는 아니고, 여자친구가 있지만 외모관리에 있어 여자들과 마찬가지로 화장품도 많이 구입하고, 의복구매에도 과감히 지출하는 남성들이 이에 속한다. 또한 전혀 가꾸지 않은 듯 자연스럽게 세련되게 외모를 가꾸는 것도 메트로섹슈얼의 필수 조건<sup>30)</sup>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진행을 위한 사회문화적 측면에서의 메트로섹슈얼이란 남성이라는 성적 정체감은 뚜렷하면서 내면의 여성적인 취향과 감성도 편안하게 수용하며, 사회적 관계보다 먼저 나를 중시하는 자기중심주의가 강하여 자신을 위해 아낌없이 투자하는 남성들이 선호하는 이미지가 함축되어 있다. 특히 메트로섹슈얼을 선호하는 남성들은 패션과 트렌드를 날카로운 시각으로 파악하고 또한 긍정적으로 자신을 표현할 줄 아는 스타일 메이커이자 새로운 문화의 흐름을 대변하는 주축이라고 사려된다.<sup>31)</sup>

---

28) 파리 AFP=연합뉴스, op, cit.

29) 박정현, op, cit.

30) 조선일보, 2004년 1월 29일.

31) 권지은, op, cit, p.9.

## 2. 메트로섹슈얼의 출현배경

메트로섹슈얼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문화, 경제, 사회구조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요약해볼 수 있다.

첫째, 전통적인 이분법적 사고가 해체된 포스트모더니즘은 복합적인 다원주의를 추구하여 좌파 대 우파, 현재 대 과거, 남성우월주의 대 여성 차별주의 등과 같은 대립개념의 쌍들이 해체되고 서로의 특징을 수용, 통합함으로써 함께 공존하는 새로운 의미가 재구성되어 표현전달하게 된다. 이는 과거의 고정된 관념을 깨뜨리고 현대의 개성화, 다양화 추세에 따라 남성적 이미지 요소와 여성적 이미지 요소를 혼합하여 동시에 표출하는 양성적 이미지로 표현하게 되었다.<sup>32)</sup> 특히 최근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성의 혼란, 기존 가치관의 붕괴, 새로운 관념들의 정립과 같은 과도기적 상황은 인간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성 정체성의 혼란은 세기말의 불안한 심리와 사회정치적 남녀 역할 변화 추이에 따른 것으로, 특히 남성의 여성화경향은 현대인의 의식과 생활방식, 영화, 광고, 예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에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sup>33)</sup>

둘째, 20세기부터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는 여성이 남성과 대등한 위치에 놓이게 되었고, 여성이 경제력을 가지게 되면서 남성도 가부장제도의 의무감에서 해방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경제적 부담이 줄어든 남성에게도 시간적 여유가 생김에 따라 자신에게로 관심을 돌리는 경향이 나타났고, 이런 현상은 외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sup>34)</sup> 또한 최근 남성미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초래되어, 예전의 근육으로 과장된 몸매에서 전체적으로 비례에 맞고 부드러운 인상을 가진 스타일이 선호되고 있으며<sup>35)</sup> 이러한 이상미의 변화는 남성들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자신을 가꾸게 하였다.

마지막으로 1990년대 이후 급격한 정보통신의 발달은 디지털정보화사회로 이행됨에 따라 정보의 고급화, 다양화, 보편화를 가져왔으며, 글로벌화는 다

32) 박옥련·이현지, “1990년대 이후 국내 남성복의 여성화경향, 「한국의류학회지」, Vol.28, No.2, 2004, p.365.

33) 권기영, op, cit, p.634.

34) 박옥련·이현지, op, cit, p.365.

35) 백유진, “고대 그리스로 향하는 남성미의 회귀”, Elle 한국판, 1997.10, p.177.

양한 문화와 감성이 공존하는 다양성의 사회로 급격히 확산<sup>36)</sup>되었다. 21세기는 획일적인 사회의 성격을 감소시키며,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에 의한 개성 추구, 자아실현 욕구 및 정체감을 충족시키려는 경향으로 전환되었고, 소비자의 욕구(need)와 내재 욕구(seed)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자유로운 감성을 요구하는 전환의 시대로 접어들었다.<sup>37)</sup> 그래서 남성의 물질적인 힘보다는 여성들의 감성적 사고와 능력을 더 중요시함으로써 남성들은 페미니스트적인 사고를 수용하게 됨에 따라 메트로섹슈얼 현상이 남성문화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되고 있다.

따라서 메트로섹슈얼은 성 정체성의 혼란, 기존 가치관의 붕괴, 신체적 이상미와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문화적 다원화, 개성추구, 감성시대의 도래로 인해 남성적인 기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여성적인 감성코드를 다양하고 과감하게 표출하기위해서 자기 자신을 꾸미는데 시간과 돈을 과감히 투자<sup>38)</sup>하는 새로운 남성성 이미지가 제기되면서 출현되었다고 사려된다.



---

36) 이경옥, “21세기 Fashion Market의 변화와 소재의 방향”, 섬유기술과 산업, I (4), pp.451-457.  
37) 이경희, “패션감성의 측정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제1보)”, 「한국의류학회」, Vol.25, No.3, 2001, p.537.  
38) 권지은, op, cit, p.2.

### 3. 메트로섹슈얼 디자인의 정의 및 조형적 특성

#### 1) 메트로섹슈얼 디자인의 정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메트로섹슈얼이란 남성이라는 성적 정체감은 뚜렷하면서 내면의 여성적인 취향과 감성도 편안하게 수용하며, 사회적 관계보다 먼저 나를 중시하는 자기중심주의가 강하여 자신을 위해 아낌없이 투자하는 남성들이 선호하는 이미지가 함축되었음을 규명하였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남성패션의 표현양식인 메트로섹슈얼 디자인의 정의를 정립하기 위해 메트로섹슈얼 개념을 바탕으로 먼저 메트로섹슈얼에 표현된 조형적 요소를 고찰하기로 한다. 그리고 그 결과를 중심으로 메트로섹슈얼 디자인의 정의를 내려보고자 한다.

#### (1) 실루엣

메트로섹슈얼의 개념에서 알 수 있듯이 실루엣은 여성스러움과 부드러움을 지향하는 것이 특징이다. 즉 인체의 곡선을 따라 흐르는 자연스러움과 여유로움을 느끼게 하는 실루엣과 편안한 스타일이나 현대적이고 모던한 느낌의 실루엣이 지배적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성패션은 여성적 이미지의 차용으로 피트한 실루엣의 슬림한 라인을 추구하며, 얇거나 부드러운 소재, 신축성 있는 니트 및 스판 소재 등의 사용은 인체의 움직임을 더욱더 곡선화시키며 자연스러운 착장 형태를 더욱 부각시켰다. 특히 신축성 있는 니트 소재의 사용은 인체의 곡선이 그대로 드러나도록 함으로써 자연스러운 이미지를 전달하고 있다.

또한 최근 남성복은 실루엣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면서 몸에 꼭 맞는 스타일이 남성패션을 주도하고 있다. 메트로섹슈얼의 실루엣을 분석해보면 어깨선은 부드럽고 허리 라인은 꼭 맞으며 바지는 다소 헐렁하게 입는 스타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슈트인 경우 V-Zone이 깊어지고, 전반적으로 쓰리버튼이 강세이지만 클래식한 느낌의 투버튼과 원버튼도 증가하는 추세이다.<sup>39)</sup> 재킷 길이는 길어졌고, 클리비지 룩(Cleavage Look)<sup>40)</sup>이 유행하면서 Inner Wear의 가슴선이 많이 파인 형태가 등장하여 시원한 목선을 연출하

고 있으며, 끈으로 허리를 묶거나 벨트를 착용하여 허리를 강조하는 등의 여성화경향이 실루엣으로 표현되고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남성복에서 유행이란 양복의 칼라와 바지의 넓이가 넓어지고 좁아지는 정도를 의미하였으나, 최근엔 메트로섹슈얼 디자인이 등장하면서 전체적인 실루엣의 변화를 뜻하는 것으로 남성들의 미적 감각이 근본적으로 달라짐을 알 수 있다.



---

39) 조선명, “2004 S/S 남성복 상품 동향 분석”, 삼성디자인연구소

40) 클리비지 룩 : 클리비지(Cleavage)는 ‘갈라짐, (옷깃 사이로 보이는)유방 사이의 오목한 곳’을 말한다. 여성복에서는 가슴선이 깊게 파여 유방 사이의 골짜기가 노출되는 스타일을 말한다. 가슴 사이의 골짜기가 보인다고 해서 계곡패션, 또는 밸리 룩 (Valley Look)이라고도 한다.

## (2) 색상

1960년대 이후부터 남성들은 단조롭고 제한된 전통적인 남성복에 여성적인 요소를 수용하여 양성적인 스타일을 나타냈지만, 이러한 현상은 일부의 남성들에게만 국한된 것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일반 남성들의 여성적인 요소의 선택은 대중문화 전반에 확산<sup>41)</sup>되었고, 그중 여성적인 이미지의 색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메트로섹슈얼한 이미지가 표현된 컬렉션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는 색상 경향은 여성적인 요소를 더욱 강하게 표현해주는 역할을 한다. 2002년에는 핑크, 오렌지, 레드, 퍼플, 옐로우 그린 등 주로 여성의류에서 사용되는 화려한 색상이 남성패션에도 유행하였으며<sup>42)</sup>, 루이뷔통(Louis Vuitton), 돌체 & 가바나(Dolce & Gabbana), 구치(Gucci), 송지오 등 베이직 색상인 화이트를 중심으로 레드와 오렌지 계열을 악센트 색상으로<sup>43)</sup>, 장광호를 비롯 엔젤핑크의 원지해, 홍승완 등도 옐로우와 핑크, 옐로우 그린, 레드, 퍼플과 골든 등 다채롭고 화려한 색상을 활용하였다.<sup>44)</sup> 그리고 2003년 봄에도 핑크, 오렌지, 레드, 퍼플, 옐로우 그린 등<sup>45)</sup>이, 2005년 S/S 밀라노, 파리 남성복 컬렉션에서는 핑크, 퍼플, 다양한 네온 색상 등<sup>46)</sup>에서 메트로섹슈얼의 분위기가 표현되었음을 알 수 있다.

국내 남성복에서도 메트로섹슈얼 현상을 화려한 색상으로 표현하였다. 제이폴락의 김난이 디자인실장은 “남성의 마음을 사로잡는 색상으로 마력을 가진 핑크가 올해는 남성패션 속으로 들어갔다. 섹시한 느낌은 레드보다 한 톤 낮지만 관능적인 매력으로 남성의 ‘메트로섹슈얼’을 표현하기에 손색이 없다”라고 한 기술에서 알 수 있다. 슈트는 님 블루와 그레이, 베이지와 핑크, 오렌지 등의 악센트 색상을 사용한 스트라이프로 부드러운 느낌을 표현하였다. 셔츠에는 핑크를 주류로, 그린 멜로 등을 첨가해 자연스러운 이미

---

41) 권지은, op, cit, p.20.

42) 김경화, “패션에 나타난 보보스(Bobos)의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Vol.9, No.2, 2003, p.42.

43) 스포츠투데이, 2002년 2월 19일.

44) 한국일보, 2002년 5월 16일.

45) 스포츠 투데이, 2003년 2월 19일.

46) 매일신문, 2004년 7월 20일.

지<sup>47)</sup>로 메트로섹슈얼을 표현하였다. 특히 남성 슈트에 화이트를 사용하여 남성의 멋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으며<sup>48)</sup>, 퍼플이 새로운 코드로 각광받고 있다. 이는 삼성패션연구소의 서정미 수석연구원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복고와 빈티지의 유행이 오래 숙성된 와인과 같은 퍼플을 통해 표출되고 있다. 최근 여성은 남성의 멋을 추구하고 남성은 여성의 미를 찾는 메트로섹슈얼 패션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 퍼플이 유행하고 있다”라고<sup>49)</sup>기술한 내용에서 알 수 있다.



---

47) 서울신문, 2004년 2월 11일.  
48) 한국일보, 2004년 6월 3일.  
49) 서울신문, 2004년 10월 6일.

### (3) 소재

메트로섹슈얼의 경향을 나타내기위해 주로 사용된 소재는 여성적 이미지를 나타내는 벨벳, 실크 등의 광택소재와 현대 남성들의 의식변화에 따라 남성복에서 터부시되었던 관능미의 한 부분으로 자신을 매력적으로 보이길 원하는 욕망과 이것을 보고자 하는 욕망이 자유롭게 표출된<sup>50)</sup> 비쳐보이는 소재 등이다. 그리고 과거 여성적 이미지의 섬세함과 화려함을 대표하는 레이스를 최근에는 남성의 섹시함과 감각적인 면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으며<sup>51)</sup>, 신체의 곡선을 부드럽게 드러내고 울동감은 물론 편안한 착용감과 가볍고 따뜻한 보온성을 주는 니트, 그리고 신축성 소재와 가죽 등을 많이 사용하여 표현하였다.

또한 현대 남성복에 자연의 아름다움과 생명력이 느껴지고 유연하고 부드러운 분위기를 표현하기위해 여성적 이미지인 꽃무늬와 식물무늬<sup>52)</sup>, 딱딱하고 날카로운 인상과 더불어 단정하고 경쾌한 느낌의 남성적인 이미지를 나타내는<sup>53)</sup> 스트라이프 무늬가 메트로섹슈얼 패션을 대변하는 무늬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 외에도 점점 더 다양한 프린트와 여성스러운 분위기의 자수처리 기법과 레이스, 프릴 장식등의 여성적인 디테일의 사용이 매우 증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54)</sup>

---

50) 현선진, “후기산업사회 서구적 남성복식에 표현된 유희성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논문, 1997, p.71.

51) 권지은, op, cit, p.40.

52) 오희선·박화순, 「의상디자인」, 경춘사, 1994, p.176.

53) 채수진·김혜연, “페미니즘적 시각에서 본 현대복식의 앤드로지너스 현상에 관한 연구”, 「복식」, 43호, 1999, p.215.

54) 권지은, op, cit, p.41.



#### (4) 기타

현대 남성들은 메트로섹슈얼의 경향으로 여성스러운 가방, 스카프, 슈얼리, 코르사주 등 다양한 액세서리로 그들의 취향을 표현하고 있다. 액세서리는 남성의 여성화 경향을 더욱 강하게 나타내주는 요인<sup>55)</sup>으로 이성의 소품이나 단품을 사용하여 표현하였다.<sup>56)</sup>

최근 남성의 아름다움 추구로 인해 크로스젠더(cross gender) 상품이 유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여성의 전유물인 토드백과 옆으로 메는 크로스 백 등 여성의 핸드백과 유사한 남성용 핸드백이다.<sup>57)</sup> 또한 다른 남성들과의 차별화된 외모를 강조하기 위해 반지, 목걸이, 귀걸이 등을 활용하고 있다.

남자들의 신발도 옷차림만큼이나 화려해지고 있으며 브라운이나 블랙 정장구두, 화이트 운동화만 신던 남성들도 구두로 메트로섹슈얼 경향을 표현하였다. 슈트에는 기존 포멀 스타일 구두보다 캐주얼한 신발을 신는 것이 최근 유행하는 메트로섹슈얼 스타일임을 금강제화의 ‘레노마’ 류재욱 디자이너가 기술한 내용에서 알 수 있다. “메트로섹슈얼은 여성스러움과 남성미의 조화이다. 최근에는 여성스러움을 강조한 의상을 입으면서, 신발은 반대로 남성미가 돋보이는 가죽구두나 스니커즈를 신는 것이 유행이다”라고 하였다.<sup>58)</sup>

남성 속옷들도 점점 대담하고 여성화되고 있는데 여성 속옷에서나 볼 수 있었던 화려하고 섹시한 스타일이 남성 속옷에 도입되면서 그 동안 러닝셔츠와 트렁크 팬티로 대변되던 남성 속옷에 몸매를 살려주는 드로어즈, 라인이 드러나지 않는 무봉제 팬티, 레이스와 망사, 자수, 큐빅 등의 화려한 장식물이 달린 속옷<sup>59)</sup>들의 등장에서 메트로섹슈얼의 경향을 한층 부각시키는 요소라 사려된다.

---

55) Ibid., p.45.

56) 채수진 · 김혜연, op, cit, p.219.

57) 경향신문, 2003년 7월 30일.

58) 조선일보, 2004년 8월 27일.

59) 문화일보, 2004년 6월 15일.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키워드인 메트로섹슈얼 디자인을 인체의 곡선을 따라 흐르는 자연스러움과 여유로움을 느끼게 해주는 실루엣과 여성적인 이미지의 색상인 핑크, 옐로우 그린, 레드, 오렌지, 퍼플, 그리고 벨벳, 실크 등의 광택소재와 비치는 소재, 니트 및 레이스, 여성적 이미지의 꽃무늬, 식물무늬, 남성적인 이미지의 스트라이프 무늬의 혼합 등으로 구성되어 남성적 이미지에 여성적 이미지가 표현된 디자인이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현대 남성복에 표현된 메트로섹슈얼 디자인의 조형적 요소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메트로섹슈얼 디자인의 조형적 요소

| 조형적 요소    |                    | 남성복에 표현된 메트로섹슈얼 디자인                                      |
|-----------|--------------------|--|
| 실루엣       |                    | 아워글래스 실루엣 : 허리강조, 부드러운 어깨                                |
|           |                    | 신체노출 : 깊어진 V-Zone, 가슴선이 많이 파인 Inner Wear, 셔츠 단추풀기        |
|           |                    | 피트한 바지, 헐렁한 바지 스타일                                       |
| 디테일 및 트리밍 |                    | 프릴, 러플, 코르사주 등   |
| 색상        |                    | pink, orange, red, purple, yellow, yellow green, white 등 |
| 소재        | 텍스처                | 광택소재 : 벨벳, 실크, 합성섬유 등                                    |
|           |                    | 비쳐보이는 소재 : 시폰, 비닐, 망사 등                                  |
|           | 무늬                 | 레이스, 니트, 모피 등  |
|           | 꽃무늬, 식물무늬, 스트라이프 등 |  |
| 기타        |                    | 여성스러운 가방, 스카프, 벨트  |
|           |                    | 주얼리 : 반지, 목걸이, 귀걸이                                       |
|           |                    | 남성스러운 가죽구두, 스니커즈   |
|           |                    | 속옷 : 드로어즈, 무봉제 팬티, 레이스와 망사, 자수 등의 화려한 장식                 |

## 2) 메트로섹슈얼 디자인의 조형적 특성

메트로섹슈얼 디자인의 조형적 요소를 고찰한 결과 다양한 양식과 스타일이 해체, 절충, 조합, 재구성되고 여성복식 요소의 도입, 섹슈얼리티의 강조, 이질적 요소의 조합, 편안함 추구 등으로 표현됨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메트로섹슈얼 디자인 정의를 재정립하면서 조형적 특성을 성의 해체성, 관능성, 절충성, 기능성으로 유추할 수 있었으며, 이를 코드화하여 구체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 (1) 성의 해체성

일반적으로 성 정체화는 남녀가 남녀의 역할을 습득하게 해줌으로써, 개인은 성 역할 정체감을 지니게 된다. 이러한 성 정체성은 인간의 역사 이래 꾸준히 유지되어 오다 근대 산업사회구조의 변화가 성에 대한 인식을 서서히 변화시켰다.<sup>60)</sup> 그리고 해체주의 페미니스트들은 타고난 생물학적인 성(sex)이 아닌 문화와 사회적인 성(gender)으로 시선을 돌려 남녀 이분법을 해체함으로써 성차를 무효화하고, 이분법의 대립항을 이루는 각 항목의 정체성을 거부하고자 하였다. 즉 남성/여성, 이성/감성, 문화/자연 등의 양극적 범주를 해체함으로써 포스트모더니즘적 특성이 내포됨과 동시에, 남성 위주의 시선과 여성 대상 즉 주체/객체의 관계거부, 위계적 담론 배열의 거부를 통해 남녀 이항대립의 해체 이미지를 제시하였다.<sup>61)</sup>

여기에서 성의 해체성은 탈 중심, 탈 경계, 탈 영역을 바탕으로 불안정성, 유동성을 특징으로 하며 근대주의와 순수 이데올로기 속에서 형성된 양극화의 논리, 대립과 갈등의 세계, 폐쇄적인 평가범과 타자에 대한 억압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이며 21세기 문화의 향방을 드러내는 중요한 개념으로 부각되었다.

그러므로 성의 해체성은 각 문화 영역에서 시대적 구분이나 절대적 진리와 미를 추구한 가치체계 대신 다양성의 용납을 수용하며, 각 영역들은 독

60) 권기영, “패션 잡지 광고에서 보여지는 성 혼돈 경향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Vol.28, No.1, 2004, p.102.

61) 김혜영·임수정, op, cit, p.111.

자성의 지향보다는 상호 침투라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포스트모더니즘 사회 하의 모호함에 대한 일종의 문화적 저항 현상인 탈문화를 의미한다.<sup>62)</sup>

따라서 메트로섹슈얼 디자인에서의 성의 해체성이란 남녀의 이분법을 해체하여 여성적 이미지의 요소의 일부 혹은 전체를 남성패션에 도입한 경우로, x실루엣, 장식적 디테일(프릴, 러플, 코르사주 등), 화려한 색상, 신체의 곡선을 부드럽게 드러내주는 신축성 소재, 여성적 이미지의 무늬(꽃, 식물) 등을 사용하여 남성적 이미지와 여성적 이미지의 해체, 조합, 재구성을 통하여 남성 안에 내재된 여성성이 표현된 디자인을 코드화한 것이다.



---

62) 이봉덕·양숙희, “21세기로의 전환기에 표현된 패션의 미학적 특성(제1보) : 정성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Vol.26, No.11, 2002, p.1655.

## (2) 관능성

인간의 성적 자극을 통한 쾌락은 가장 자연스럽게 본능적인 욕구이며, 성적 경험은 계속해서 그것의 만족을 추구하게 하는 강렬한 체험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육체적인 애욕을 드러내는 관능미의 표현은 예술과 대중문화에서 끊임없이 다루는 주제이다.<sup>63)</sup> 관능은 정신적인 사랑과 육체적인 사랑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육체적인 사랑과 성욕을 포함하고 있으며 성적인 만족을 위한 양식으로서 호색적인 성격을 가진 육체적인 사랑을 묘사하기도 한다.<sup>64)</sup>

또한 인간은 옷을 입음으로써 오히려 더욱 상대방의 시선을 끌게 하여 자신의 성적 매력을 나타내려는 욕망이 내면세계에 잠재해 있다. 특히, 소비문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남성도 자신의 노출된 육체나 의상과 스타일을 통해 섹슈얼리티를 강조하게 되었다.<sup>65)</sup>

따라서 관능성은 자신의 성적 매력을 나타내려는 욕망이라 할 수 있으며, 여성은 남성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남성의 응시 대상이라는 전통적인 관념이 파괴되면서 여성 또한 남성을 응시하는 주체가 됨으로써 남성의 신체를 성적 대상화시켰다. 이것이 남성의 나르시시즘과 결합하여 관능성을 나타낸 것이다.<sup>66)</sup>

따라서 메트로섹슈얼 디자인에서의 관능성이란 신체의 직접적 노출을 통해 신체의 관능적 부위를 강조하고 인체미를 표현하거나, 움직임에 따라 인체선이 드러나는 형태인 간접적 노출을 통해 은유나 암시, 연상 과정에서 시각적인 인지에 그치지 않고 관능적인 신체부위를 감지하여 형태를 연상하는 심리작용을 일으켜 결국 성적 연상을 이르게 되는 관능적인 느낌을 클리비지 룩과 비쳐보이는 소재(시폰, 망사, 레이스 등), 무봉제 팬티 등을 이용

63) 김유로, “1990년대 패션에 나타난 쾌락주의”,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p.38.

64) 서정립·진경옥, “가상공간 게임에 나타난 사이버 캐릭터 의상의 조형성”, 「복식」, Vol.54, No.3, 2004, p.110.

65) 정세희, “영화의상에 나타난 젠더(Gender) 정체성-1930년대부터 1990년대를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p.1.

66) 도희·양숙희, “뮤직비디오 의상에 나타난 남성 이미지 연구-2000년부터 2002년 현재까지-”, 「복식」, Vol.54, No.3, 2004, p.35.

하여 표현된 디자인을 코드화한 것이다.



### (3) 절충성

여러 예술 분야에 반영된 절충성은 포스트모더니즘의 예술표현 기법의 하나로 다양한 양식의 혼합을 의미하며, 복식을 착용하는 인간의 정체성과 관련된 사회 문화적 범주와 시대적 맥락을 포괄한다.<sup>67)</sup> 일반적으로 절충은 상이한 견해, 이론, 사상 등을 끌어모아 기계적, 무원칙적으로 짜 맞추는 것, 또는 그것을 통하여 이루어진 새로운 방향의 모색을 말한다. 즉, 추상과 재현, 역사와 모더니티, 수공예와 하이테크놀러지, 엘리트문화와 대중문화의 통합에 이르려는 경향으로 파악된다.

그러므로 절충성은 다양한 문화의 스타일들이 경계와 구분이 흐려지게 된 것을 의미하기보다는 대조와 결합의 경계를 충분히 인식한 후 병치(juxtaposition)에서 오는 재치 있는 스타일의 혼합을 의미한다.<sup>68)</sup>

따라서 메트로섹슈얼 디자인에서의 절충성이란 이질적 요소의 도입으로 조화되지 않는 대상이나 이미지의 병치, 전통적인 복식의 소재 대신 이질적인 소재의 사용, 하위문화와 고급문화의 경계를 해체하고 이들의 요소를 혼성·도치하여 풍부한 표현과 애매성이 강조된 것과 여성적 이미지와 남성적 이미지의 혼합으로 표현된 디자인을 코드화한 것이다.

---

67) 정칠선, “현대패션에 반영된 Dualism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p.24.

68) 신재룡, “현대패션에 반영된 퓨전(Fusion) 이미지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p.17-18.

#### (4) 기능성

디자인의 미적인 근원을 다룰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기능성이다. 그 이유는 모든 디자인의 근본적인 목적은 만들어진 물건을 통해 인간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실용적인 측면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sup>69)</sup>

19세기 디자인의 본질은 현실성을 은폐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 기계류는 지하실이나 또는 보이지 않는 곳에 방치되었으며, 물체는 기능과는 관계없는 많은 장식으로 실체가 보이지 않도록 위장되었다. 사람의 육체도 역시 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품위 있고, 고상한 의복 속에 감추어 졌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실용성을 필요로 하는 물품들도 응용미술이라는 개념으로 제작되었고, 실질적인 제품의 질보다는 표면의 장식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요구되는 실용적 기능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다. 결국 이러한 실제적 기능에 대한 요구가 20세기 기능주의를 초래하였다고 할 수 있다.<sup>70)</sup>

기능주의에 대해 학자들은 유추를 많이 사용하였다. 유추는 기능적 입장을 지지하는 주장을 탐구할 때 하나의 출발점으로 쓰이는 세 가지로 분류, 통합될 수 있다. 첫째, 기계미학에 바탕을 둔 조형적 완벽함이란 가장 완벽한 기계적 능률에 그 기본을 두는 기계적 유추(mechanical analogy), 둘째, 자연의 미와 자연의 완벽성에 대한 신념에 바탕을 두고 꾸미지 않는 모든 조형물을 살아있는 유기체로 간주하여 이 안의 모든 부분들은 그 구조와 기능과 동일한 리듬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는 유기적 유추, 마지막으로 완전함과 정직함, 진실함에 그 신념의 바탕을 두고 디자인의 실용성을 강조하며 인간성 회복의 의미를 내포하는 도덕 유추로 분류할 수 있다.<sup>71)</sup> 현대의 기능주의는 기계적 유추, 유기적 유추, 도덕적 유추 중 어느 한 개념에 예측되지 않고 20세기 전반의 기능주의의 기본적 특성을 유지하면서 조금은 변질된 인자와 부가된 인자를 갖는 새로운 기능주의<sup>72)</sup> 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기능성이란 어떤 활동 분야에서 그 구성 성분이 하는 작용으로,

69) 하지수, “1990년대 절충적 기능주의 패션의 미적 가치”, 「복식」, Vol.52, No.5, 2002, p.156.

70) 하지수, “미국 패션디자인에 나타난 기능주의”, 「한국의류학회지」, Vol.26, No.9/10, 2002, p.158.

71) Ibid., p.159.

72) 하지수, op, cit, p.160.



어떠한 작용을 하는가에 따라 그 의미하는 바가 다양하다. 협의로는 유용성, 합목적성, 편리와 관련되는 구조상의 명확한 표현인 물리적 기능만을 의미하며, 광의로는 심리적, 사회적, 문화적 기능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다.<sup>73)</sup>

따라서 메트로섹슈얼 디자인에서의 기능성이란 단순하고 편안한 실루엣의 사용, 천연섬유와 인조섬유의 혼용 등의 물리적 기능뿐만 아니라 심리적, 사회적, 문화적 기능까지 포함된 편안함과 실용성을 인체의 곡선을 따라 흐르는 자연스럽게 여유로운 실루엣과 편안한 스타일, 신축성 있는 니트 및 스판 소재, 여성스러운 스타일의 토드백과 크로스 백 등으로 표현된 디자인을 코드화한 것이다.



---

73) Ibid., p.156.

### Ⅲ. 현대 남성패션에 표현된 메트로섹슈얼 디자인의 조형적 특성 분석

#### 1. 성의 해체성

본 연구의 결과, 성의 해체성이란 남녀의 이분법을 해체하여 여성적 이미지의 요소의 일부 혹은 전체를 남성패션에 도입한 경우로, x실루엣, 장식적 디테일(프릴, 러플, 코르사주 등), 화려한 색상, 신체의 곡선을 부드럽게 드러내주는 신축성 소재, 여성적 이미지의 무늬(꽃, 식물) 등을 사용하여 남성적 이미지와 여성적 이미지의 해체, 조합, 재구성을 통하여 남성 안에 내재된 여성성이 표현된 디자인의 코드를 중심으로 메트로섹슈얼 디자인이 표현된 작품을 분석·해석하겠다.

(그림 1)은 2003년 F/W Fendi의 작품이다. 다시 말해서 여성적 이미지의 피트한 솔칼라 재킷과 여성의 섬세함과 우아함이 표현된 벨트를 착용하여 허리를 강조함으로써 생물학적인 성이 아닌 사회문화적인 성(gender)을 부각시켜 기존 남녀 이분법이 해체된, 다시 말해서 남성복식에 여성복식의 요소를 조합, 재구성함으로써 성차를 무효화하여 다양성을 수용한 성의 해체성이 표현되었다.

(그림 2), (그림 3)은 2002년 S/S Versus의 작품이다. (그림 2)는 여성적 이미지의 피트된 실루엣과 퍼플컬러의 슬리브리스 셔츠와 팬츠에서, (그림 3)도 여성적 이미지의 피트한 실루엣과 레드 재킷과 팬츠에서 남성성이라는 영역 안에 여성적 이미지를 재구성하여 이분법의 대립항을 해체시킨 작품이다.

(그림 4)는 2000년 S/S Gianni Versace의 작품이다. 화려한 여성적 이미지인 꽃무늬 재킷과 여성적 감성이 표현된 핑크 팬츠를 조합시킴으로써 탈경계, 탈 영역이 표현된 복식요소의 유동성이 제시된 작품으로, 여기에서 남성의 부드러움은 물론 과감한 자기표현이 구성됨을 알 수 있다.

(그림 5)와 (그림 6)은 2002년 F/W, 2003년 F/W Gucci의 작품이다. 전체

적으로 여성적인 실루엣의 사용과 그동안 여성복식의 아이টে만으로 여겼던 스카프를 차용하여 성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해체하고 새롭고 독창적인 패션을 추구하여 성에 대한 이분법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남녀 양성을 조합한 디자인이다.

(그림 7)은 2002년 F/W John Preston의 작품으로, 같은 소재의 스카프와 솔을 바지위에 착용함으로써 남성성과 여성성을 조합·재구성을 통하여 성 역할에 의한 고정된 의복 행동이 해체됨을 알 수 있다. (그림 8)은 2002년 F/W John Preston의 작품으로, 남성슈트 안에 여성적 이미지가 강한 핑크 컬러의 터틀넥 스웨터와 베레모를 이용하여 부드럽고 우아한 여성적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이는 성의 경계가 무너진 남성의 미적 요구에 대한 자기표현만이 존재하며 남성적인 특성과 유연성, 인내, 순종 등으로 대표되는 여성적인 특성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내어 또 다른 남성성이 표현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9)는 2001년 S/S Roberto Cavalli의 작품이다. 여성적인 실루엣과 셔츠에 프릴장식을 사용하여 부드러움과 우아함을 표현하여 성의 해체성이 표현됨은 물론 셔츠의 단추를 두, 세계 푼 클리비한 스타일에서 관능적인 이미지도 표현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0)은 2002년 S/S Rocco Barocco의 작품으로, 세련된 스타일의 화이트 슈트와 스트라이프 셔츠, 중절모에 여성적 이미지가 강한 레드 코르사주를 사용하여 성에 대한 고정된 관념과 편견을 해체하여 남성의 미적 요구에 대한 자기표현과 감성이 강하게 표현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 Fendi,  
「firstview.com」,  
03 F/W



(그림 2) Versus,  
「firstview.com」,  
02 S/S



(그림 3) Versus,  
「firstview.com」,  
02 S/S



(그림 4) Gianni Versace,  
「firstview.com」,  
00 S/S



(그림 5) Gucci,  
「firstview.com」,  
02 F/W



(그림 6) Gucci,  
「firstview.com」,  
03 F/W



(그림 7) John Preston,  
「firstview.com」,  
02 F/W



(그림 8) John Preston,  
「firstview.com」,  
02 F/W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그림 9) Roberto Cavalli,  
「firstview.com」,  
01 S/S



(그림 10) Rocco Barocco,  
「firstview.com」,  
02 S/S

## 2. 관능성

본 연구의 결과, 관능성이란 신체의 직접적 노출을 통해 신체의 관능적 부위를 강조하고 인체미를 표현하거나, 움직임에 따라 인체선이 드러나는 형태인 간접적 노출을 통해 은유나 암시, 연상 과정에서 시각적인 인지에 멈추지 않고 관능적인 신체부위를 감지하여 형태를 연상하는 심리작용을 일으켜 결국 성적 연상에 이르게 되는 관능적인 느낌을 클리비지 스타일과 비쳐보이는 소재(시폰, 망사, 레이스 등), 무봉제 팬티 등을 이용하여 표현된 디자인의 코드를 중심으로 메트로섹슈얼 디자인이 표현된 작품을 분석·해석하겠다.

(그림 11)은 2002년 S/S Gianni Versace의 작품이다. see-through 소재를 통한 간접적인 노출은 남성의 강하고 단련된 인체를 부각시킴으로써 남성다운 힘과 용맹성이 함축됨을 알 수 있으며, 문신 또한 남성다움을 강조시키는 표현이라 사려된다. 다시 말해서 비치는 소재를 통한 신체의 간접적인 노출은 성적인 호기심을 유발시키는 관능성이 표현되었다.

(그림 12)는 2000년 S/S Gianni Versace의 작품으로, 신체의 곡선을 부드럽게 드러내는 니트 소재를 이용하여 움직임에 따라 인체선이 드러남은 물론 연상을 통한 시각적인 인지에 멈추지 않고 관능적인 신체부위를 감지하여 성적 연상을 유도하는 디자인으로 관능성을 표현하였다. (그림 13)과 (그림 14)도 2000년, 2003년 S/S Calvin Klein의 작품으로, 니트 소재를 이용하여 상체를 비쳐보이게 함으로써 성적인 자극을 유발함과 동시에 노출과 은폐의 선정적인 분위기를 자아냄으로써 남성의 신체를 성적 대상화하여 미지의 것에 대한 호기심을 유발하며 일종의 훔쳐보기의 형태로써 관능성을 표현하였다.

(그림 15)는 2002년 S/S Enrico Coveri의 작품이다. 화이트 재킷과 화려한 스트라이프 셔츠, 벨트대신 넥타이를 착용한 모습으로 셔츠의 단추를 두, 세계 폰 클리비지(cleavage) 스타일로 가슴의 굴곡을 노출시킴으로써 세련되고 관능적인 이미지가 표현되었으며, 또한 성적 매력을 극대화함으로써 여성의 관심을 얻으려는 목적에서의 관능성이 표출되었다.

(그림 16), (그림 17)은 2004년 S/S Calvin Klein의 작품이다. (그림 16)

또한 화이트 셔츠와 팬츠를 착용하여 세련되고 깨끗한 이미지와 더불어 셔츠의 단추를 풀어 관능성이 표현되었고, (그림 17)은 본래 속옷이었던 런닝 셔츠를 겉옷으로 착용함으로써 신체의 노출과 더불어 관능미를 자아내어 강인한 남성이 표현되었다.

(그림 18)은 2004년 S/S Dolce & Gabbana의 작품으로, 단추를 풀어 착용한 셔츠와 팬티에서 노출에 대한 수치심 없이 남성 자신도 누군가가 자기의 육체를 마치 성적 대상으로 성적 쾌감을 품고 바라보고, 어루만지며 마침내는 완전한 만족 상태에 도달하기를 원하는 나르시시트적 입장에서의 신체 노출로 관능적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그림 19)는 2002년 S/S Fause Haten의 작품이다. 비쳐보이는 셔츠의 한쪽 소매를 접어올리고 하단부분의 단추를 풀어 배꼽을 노출하여 타인의 시선에 상관없는 적극적인 개성표현과 관능미를 자아냄을 알 수 있다. (그림 20)은 2001년 S/S Alan Truong의 작품으로, 한쪽 소매가 없는 신축성소재의 탑을 착용하여 배근육을 노출하여 남성의 강인한 힘과 성적호기심을 유발하여 남성을 성적 대상화한 관능성이 표현되었다.





(그림 11) Gianni Versace,  
「firstview.com」,  
02 S/S



(그림 12) Gianni Versace,  
「firstview.com」,  
00 S/S



(그림 13) Calvin Klein,  
「firstview.com」,  
00 S/S



(그림 14) Calvin Klein,  
「firstview.com」,  
03 S/S



(그림 15) Enrico Coveri,  
「firstview.com」,  
02 S/S





(그림 16) Calvin Klein,  
「firstview.com」,  
04 S/S



(그림 17) Calvin Klein,  
「firstview.com」,  
04 S/S



(그림 18) Dolce &  
Gabbana,  
「firstview.com」,  
04 S/S



(그림 19) Fause Hatén,  
「firstview.com」,  
02 S/S



(그림 20) Alan Truong,  
「firstview.com」,  
01 S/S

### 3. 절충성

본 연구의 결과, 절충성이란 이질적 요소의 도입으로 조화되지 않는 대상이나 이미지의 병치, 전통적인 복식의 소재 대신 이질적인 소재의 사용, 하위문화와 고급문화의 경계를 해체하고 이들의 요소를 혼성·도치하여 풍부한 표현과 애매성의 강조된 것과 여성적 이미지와 남성적 이미지의 혼합으로 표현된 디자인의 코드를 중심으로 메트로섹슈얼 디자인이 표현된 작품을 분석·해석하겠다.

(그림 21)은 2002년 S/S Fendi 작품으로, 이질적인 소재의 사용 및 상반되는 이미지의 아이템의 결합으로 구성된 디자인이다. 즉 남성슈트의 몸판과 캐주얼한 점퍼소매의 결합은 기존의 가치와 양식을 붕괴하는 새로운 표현방법으로, 이질적인 소재의 콜라주 기법을 이용하여 혼용, 부정함으로써 의외적인 형태 및 부조화 형태로 절충성을 표현하였다.

(그림 22)는 2000년 S/S Dolce & Gabbana의 작품으로, 남성슈트에 패치워크 및 슬래쉬 된 진 팬츠를 착용한 모습이다. 하이패션인 슈트에 스트리트 패션인 진 팬츠를 병치시켜 경계를 해체하고 이들의 요소를 혼성, 절충된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그림 23)은 2002년 F/W Versus의 작품이다. 이 작품 또한 가죽 소재의 테일러드슈트 안에 하위패션인 후드 재킷의 혼성에서 현대 남성의 자유로운 감성을 볼 수 있다. (그림 24)는 2002년 F/W Prada의 작품으로, 포멀한 남성슈트에 캐주얼한 티셔츠와 모자의 혼성에서 엘리트 문화와 대중문화의 절충된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림 25)는 2001년 F/W Cerruti의 작품이다. 이는 남성슈트위에 모피를 착용하여 기존 남성복에 애용되지 않았던 이질적인 소재를 절충시킨 디자인이다. (그림 26)과 (그림 27)은 2001년 S/S, 2000년 S/S Gianni Versace의 작품으로, 슬림한 라인의 남성슈트에 동양적 이미지의 자수를 사용하여 서양문화와 동양문화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절충성이 표현되었다.

(그림 28)은 2002년 S/S Enrico Coveri의 작품이다. 기하학 무늬의 셔츠와 가죽소재의 7부 팬츠를 통해 보편적으로 고정되었던 남성팬츠 길이의 변화를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기존 스타일의 경계와 구분이 모호해짐을 알 수 있다. 더불어 단추를 푼 셔츠의 클리비지한 스타일에서 관능성도 표현되

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9)는 2004년 F/W Miu Miu의 작품으로, 전형적인 남성복 스타일에 스키장갑의 혼성은 스타일의 경계와 구분의 대조에 의한 병치에서 재치 있는 절충된 디자인을 볼 수 있다.

(그림 30)은 2004년 F/W Forum의 작품으로, 포멀한 남성슈트에 꽃무늬가 프린트된 셔츠와 징을 박은 벨트, 체인장식을 사용하여 이질적인 요소인 꽃무늬, 벨트, 체인을 사용하여 조화되지 않는 이미지의 병치, 하위문화와 고급문화의 경계 해체, 이질적인 소재의 사용 등 절충된 디자인이 표현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1) Fendi,  
「firstview.com」,  
02 S/S



(그림 22) Dolce &  
Gabbana,  
「firstview.com」,  
00 S/S



(그림 23) Versus,  
「firstview.com」,  
02 F/W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그림 24) Prada,  
「firstview.com」,  
02 F/W



(그림 25) Cerruti,  
「firstview.com」,  
01 F/W



(그림 26) Gianni Versace,  
「firstview.com」,  
01 S/S



(그림 27) Gianni Versace,  
「firstview.com」,  
00 S/S



(그림 28) Enrico Coveri,  
「firstview.com」,  
02 S/S



(그림 29) Miu Miu,  
「firstview.com」,  
04 F/W



(그림 30) Forum,  
「firstview.com」,  
04 F/W

#### 4. 기능성

본 연구의 결과, 기능성이란 단순하고 편안한 실루엣의 사용, 천연섬유와 인조섬유의 혼용 등으로 물리적 기능뿐만 아니라 심리적, 사회적, 문화적 기능까지 포함된 편안함과 실용성을 인체의 곡선을 따라 흐르는 자연스럽고 여유로운 실루엣과 편안한 스타일, 신축성 있는 니트 및 스판 소재, 여성스러운 스타일의 토드백과 크로스 백 등으로 표현된 디자인의 코드를 중심으로 메트로섹슈얼 디자인이 표현된 작품을 분석·해석하겠다.

(그림 31)은 2003년 S/S Gucci의 작품으로, 니트 소재를 이용하여 자연스럽고 편안하며 여성스러움이 가미된 의복과 여성의 전유물이었던 솔더백을 착용한 모습이다. 이는 과거의 역동적이고 남성스러운 기능성 중심의 스타일보다는 고급스럽고 여성스러움이 첨가된 스타일로써 현대인의 라이프스타일의 변화에서 볼 수 있는 새로운 가치관이 표현되어 색채, 형태, 구성 등이 극히 단순화된 순수한 기능성이 표현되었다.

(그림 32), (그림 33)은 2003년 S/S Miu Miu의 작품으로, 실용성과 기능적인 면이 강조된 힙백과 기능성뿐만 아니라 옷의 일부가 된 장식적인 포켓을 착용한 모습에서 편안함과 실용성을 중시하는 캐주얼화 된 라이프스타일의 한 양식으로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4)는 2003년 S/S Dolce & Gabbana의 작품으로, 여성적인 이미지가 잘 표현된 니트와 카고 팬츠, 스니커즈로 기능성이 표현되었다. 특히 카고 팬츠와 스니커즈의 착용은 실용성과 기능성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아이템이다.

(그림 35)는 2004년 S/S Gianni Versace의 작품으로, 동양의 단순미와 자연 친화적 스타일과 디테일에서 자연의 미와 자연의 완벽성에 대한 신념에 바탕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꾸미지 않는 모든 조형물을 살아있는 유기체로 보고, 이 안의 모든 부분들은 구조와 기능, 동일한 리듬을 따라야한다는 유기적 유추의 기능성이 표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6)은 2004년 S/S Ron and Ron의 작품으로, 장식적인 요소가 강한 포켓의 사용과 바이어스 장식, 직선적 실루엣을 사용하여 남성적 이미지를 자아내고 있으며 단추대신 혹을 사용하여 편리와 실용성을 표현하였다. (그림 37)은 2004년 F/W Burberry의 작품이다. 여성적 이미지의 코듀로이 재

킷위에 실용성과 장식적 요소가 가미된 백을 착용하여 캐주얼한 이미지의 가능성을 표현하였다.

(그림 38)과 (그림 39)는 2003년 S/S, F/W Dolce & Gabbana의 작품이다. (그림 38)은 클리비지 스타일의 셔츠와 카고 팬츠, 샌들, 백, 스포츠선글라스, 밴드를 착용하여 활동적인 디자인에서 가능성을 찾아볼 수 있다. 생활의 다양화의 일환인 스포츠패션은 새로운 가치관의 표출로써 일상복으로도 자유롭게 활용되고 있다. (그림 39)는 보온성을 높인 파카와 카고 팬츠, 스니커즈, 스키 캡을 착용한 모습으로, 편안함과 실용성을 중시하는 캐주얼화된 라이프스타일이 반영된 가능성이 표현되었다.

(그림 40)은 2003년 S/S Laura Biagiotti의 작품으로, 가벼운 소재의 카고 팬츠, 윈드브레이커 안에 포멀한 남성 재킷만을 착용한 모습에서 기능성과 관능적인 이미지가 동시에 표현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샌들의 착용은 카고 팬츠, 스니커즈와 함께 가능성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아이템이다.





(그림 31) Gucci,  
「firstview.com」,  
03 S/S



(그림 32) Miu Miu,  
「firstview.com」,  
03 S/S



(그림 33) Miu Miu,  
「firstview.com」,  
03 S/S



(그림 34) Dolce &  
Gabbana,  
「firstview.com」,  
03 S/S



(그림 35) Gianni Versace,  
「firstview.com」,  
04 S/S





(그림 36) Ron and Ron,  
「firstview.com」,  
04 S/S



(그림 37) Burberry,  
「firstview.com」,  
04 F/W



(그림 38) Dolce &  
Gabbana,  
「firstview.com」,  
03 S/S



(그림 39) Dolce &  
Gabbana,  
「firstview.com」,  
03 F/W



(그림 40) Laura Biagiotti,  
「firstview.com」,  
03 S/S

이상과 같이 메트로섹슈얼 디자인의 조형적 특성을 요약해보면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메트로섹슈얼 디자인의 조형적 특성 분석

| 조형적 특성 | 내적의미  | 외적형식  | 표현기법  |
|--------|---|---|---|
| 성의 해체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 사회적인 성의 개념으로 인해 남녀 이분법이 해체됨으로써 성차의 무효화</li> <li>· 이분법의 대립항을 이루는 각 항목의 정체성 거부</li> <li>· 탈 중심, 탈 경계, 탈 영역을 바탕으로 불안정성, 유동성 제시</li> <li>· 다양성 수용</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적 이미지의 일부 혹은 전체를 도입(x실루엣, 장식적 디테일, 화려한 색상 등)</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미지 차용</li> <li>· 해체</li> <li>· 조합</li> <li>· 재구성</li> </ul>                       |
| 관능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연스럽고 본능적인 인간의 욕구</li> <li>· 자신의 성적매력을 나타내려는 욕망</li> <li>· 남성 신체의 성적 대상화</li> <li>· 남성의 나르시시즘과 결합</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체의 직접적 노출을 통한 신체의 관능적 부위를 강조하고 인체미를 표현</li> <li>· 간접적인 노출을 통한 신체부위를 연상하게 하는 심리작용</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접노출</li> <li>· 간접노출</li> <li>· 속옷의 겹짓화</li> </ul>                                 |
| 절충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양식의 혼합</li> <li>· 인간의 정체성과 관련된 사회, 문화적 범주와 시대적 맥락</li> <li>· 추상과 재현, 역사와 모더니티, 수공예와 하이테크놀러지, 엘리트 문화와 대중문화의 통합에 이르는 경향</li> <li>· 새로운 방향의 모색</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질적 요소의 도입</li> <li>· 이질적 소재의 사용</li> <li>· 하이패션과 매스패션의 경계 해체</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혼성</li> <li>· 해체</li> <li>· 도치, 병치</li> <li>· 형태파괴</li> <li>· 콜라주, 패치워크</li> </ul> |
| 기능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간의 편의 도모</li> <li>· 라이프스타일의 변화에 대한 새로운 가치관의 표현</li> <li>· 자연미·자연의 완벽성에 대한 신념</li> <li>· 완전함, 정직함, 성실함 추구</li> <li>· 인간성 회복</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순하고 편안한 실루엣 사용</li> <li>· 천연섬유·인조섬유 혼용</li> <li>· 실용성과 기능적인 면이 강조된 아이템 사용</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혼용</li> <li>· 병치</li> </ul>  |

## IV. 결론 및 제언

현대패션은 다양한 예술양식이 혼재된 양상으로 표현되고 있다. 특히 남성성과 여성성을 부정함으로써 성의 혼돈과 성의 부재를 표현하였고 상이한 요소들의 표현과 전통적인 미의 위계구조 파괴 등 탈장르화 현상이 초래됨에 따라 새로운 남성적 이미지를 추구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 예로 최근 부각되고 있는 메트로섹슈얼 현상은 남성의 라이프스타일을 설명해주는 가장 혁신적인 요인 중의 하나이며, 남성적 이미지를 대변하는 신조어이지만 이에 대한 연구가 사회문화적 출현배경에 주안점을 두었을 뿐 표현양식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대 남성패션의 대표적인 표현양식인 메트로섹슈얼 디자인의 특성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기 위해 메트로섹슈얼의 개념을 규명한 후 메트로섹슈얼 디자인의 정의를 재정립하고, 메트로섹슈얼 디자인을 분석·해석하여 조형적 특성을 제시함으로써 현대 남성패션에 나타난 실험적 디자인의 의미를 재해석해 보았다.

그 결과를 요약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사회문화적 측면에서의 메트로섹슈얼이란 남성이라는 성적 정체감은 뚜렷하면서 내면의 여성적인 취향과 감성도 편안하게 수용하며, 사회적 관계보다 먼저 나를 중시하는 자기중심주의가 강하여 자신을 위해 아낌없이 투자하는 남성들이 선호하는 이미지가 함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패션디자인측면에서의 메트로섹슈얼은 성 정체성의 혼란, 기존 가치관의 붕괴, 신체적 이상미와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문화적 다원화, 개성추구, 감성시대의 도래로 인해 남성적인 기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여성적인 감성적 코드를 다양하고 과감하게 표출하기위해서 자기 자신을 꾸미는데 과감히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 새로운 남성성 이미지가 제기되면서 출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의 키워드인 메트로섹슈얼 디자인이란 인체의 곡선을 따라 흐르는 자연스러움과 여유로움을 느끼게 해주는 실루엣과 여성적인 이미지

의 색상인 핑크, 옐로우 그린, 레드, 오렌지, 퍼플, 그리고 벨벳, 실크 등의 광택소재와 비치는 소재, 니트 및 레이스, 여성적 이미지의 꽃무늬·식물무늬, 남성적 이미지의 스트라이프 무늬의 혼합 등으로 구성되어 표현된 디자인이라고 정의 내리고자한다.

따라서 메트로섹슈얼 디자인의 정의를 바탕으로 성의 해체성, 관능성, 절충성, 기능성 등 조형적 특성을 유추하여 코드화한 다음, 메트로섹슈얼 디자인을 분석·해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성의 해체성은 각 문화 영역에서 시대적 구분이나 절대적 진리وام미를 추구한 가치체계 대신 다양성의 용납을 수용하고, 각 영역들은 독자성의 지향보다는 상호 침투라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포스트모더니즘 사회 하의 모호함에 대한 일종의 문화적 저항 현상인 탈문화를 의미한다. 이에 메트로섹슈얼 디자인에서의 성의 해체성이란 남녀의 이분법을 해체하여 여성적 이미지의 요소의 일부 혹은 전체를 남성패션에 도입한 경우로, x실루엣, 장식적 디테일(프릴, 러플, 코르사주 등), 화려한 색상, 신체의 곡선을 부드럽게 드러내주는 신축성 소재, 여성적 이미지의 무늬(꽃, 식물) 등을 사용하여 남성적 이미지와 여성적 이미지의 해체, 조합, 재구성을 통하여 남성 안에 내재된 여성성이 표현된 디자인을 코드화한 것이다.

둘째, 관능성은 자신의 성적 매력을 나타내려는 욕망이라 할 수 있다. 여성은 남성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남성의 응시 대상이라는 전통적인 관념이 파괴되면서 여성 또한 남성을 응시하는 주체가 되어 남성의 신체를 성적 대상화시켰다. 이것이 남성의 나르시시즘과 결합하여 관능성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메트로섹슈얼 디자인에서의 관능성이란 신체의 직접적 노출을 통해 신체의 관능적 부위를 강조하고 인체미를 표현하거나, 움직임에 따라 인체선이 드러나는 형태인 간접적 노출을 통해 은유나 암시, 연상 과정에서 시각적인 인지에 그치지 않고 관능적인 신체부위를 감지하여 형태를 연상하는 심리작용을 일으켜 결국 성적 연상을 이르게 되는 관능적인 느낌을 클리비지 룩과 비쳐보이는 소재(시폰, 망사, 레이스 등), 무봉제 팬티 등을 이용하여 표현된 디자인을 코드화한 것이다.

셋째, 절충성은 다양한 문화의 스타일들이 경계와 구분이 흐려지게 된 것

을 의미한다기보다는 대조와 결합의 경계를 충분히 인식한 후 병치에서 오는 재치 있는 스타일의 혼합을 의미한다. 이에 메트로섹슈얼 디자인에서의 절충성이란 이질적 요소의 도입으로 조화되지 않는 대상이나 이미지의 병치, 전통적인 복식의 소재 대신 이질적인 소재의 사용, 하위문화와 고급문화의 경계를 해체하고 이들의 요소를 혼성·도치하여 풍부한 표현과 애매성이 강조된 것과 여성적 이미지와 남성적 이미지의 혼합으로 표현된 디자인을 코드화한 것이다.

넷째, 기능성이란 어떤 활동 분야에서 그 구성 성분이 하는 작용으로, 어떠한 작용을 하는가에 따라 그 의미하는 바가 다양하다. 협의로는 유용성, 합목적성, 편리와 관련되는 구조상의 명확한 표현인 물리적 기능만을 의미하며, 광의로는 심리적, 사회적, 문화적 기능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에 메트로섹슈얼 디자인에서의 기능성이란 단순하고 편안한 실루엣의 사용, 천연섬유와 인조섬유의 혼용 등의 물리적 기능뿐만 아니라 심리적, 사회적, 문화적 기능까지 포함된 편안함과 실용성을 인체의 곡선을 따라 흐르는 자연스럽고 여유로운 실루엣과 편안한 스타일, 신축성 있는 니트 및 스판 소재, 여성스러운 스타일의 토드백과 크로스 백 등으로 표현된 디자인을 코드화한 것이다.

이상과 같이 특히 메트로섹슈얼을 선호하는 남성들은 패션과 트렌드를 날카로운 시각으로 파악하고 또한 긍정적으로 자신을 표현할 줄 아는 스타일 메이커이자 새로운 문화의 흐름을 대변하는 주축이라 사려된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현대 남성들의 선호 이미지와 트렌드를 적극적으로 파악하여 현대 남성패션에 다양한 디자인을 제시하는 연구가 후속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사려된다.

## 참 고 문 헌

### 논문

- 권기영, “복식에 나타난 양성성의 상징적 의미 연구”, 「복식문화연구」, 제10권, 제6호, 2002
- 권기영, “패션 잡지 광고에서 보여지는 성 혼돈 경향에 관한 연구”, 「한국 의류학회지」, Vol.28, No.1, 2004
- 권지은, “현대 남성패션에 나타난 메트로섹슈얼 현상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 김경아, “1990년대 패션에 나타난 ‘less’ 경향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 김경옥·금기숙, “현대패션에 나타난 앤드로지너스에 관한 연구”, 「복식」, Vol.36, 1998
- 김경화, “패션에 나타난 보보스(Bobos)의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Vol.9, No.2, 2003
- 김병옥·이상례, “현대 남성복식에 나타난 Borderless현상”, 「한국의류산업학회지」, 제5권, 제5호, 2003
- 김유로, “1990년대 패션에 나타난 쾌락주의”,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 김윤경·이경희, “20세기 남성패션에 나타난 상징적 의미에 관한 연구”, 「복식」, Vol.52, No.4, 2002
- 김혜영·임수정, “현대 패션에 나타난 성의 해체 이미지에 관한 연구”, 「생활과학」, 제7호, 2004.
- 도희·양숙희, “뮤직비디오 의상에 나타난 남성 이미지 연구-2000년부터 2002년 현재까지-”, 「복식」, Vol.54, No.3, 2004
- 박미령, “현대 패션에 표현된 젠더(Gender)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산업학회지」, 제5권, 제4호, 2003
- 박옥련·이현지, “1990년대 이후 국내 남성복의 여성화경향”, 「한국의류학회지」, Vol.28, No.2, 2004

- 서정립·진경옥, “가상공간 게임에 나타난 사이버 캐릭터 의상의 조형성”, 「복식」, Vol.54, No.3, 2004
- 손미희, “Post Modern-Feminism의 문화현상과 패션”, 「복식」, Vol.36, 1998
- 송명진·채금석, “현대 남성 패션에 나타난 성 정체성의 표현 양상”, 「한국의류학회」, Vol.25, No.2, 2001
- 신재룡, “현대패션에 반영된 퓨전(Fusion) 이미지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 이경옥, “21세기 Fashion Market의 변화와 소재의 방향”, 섬유기술과 산업, I (4)
- 이경희, “패션감성의 측정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제1보)”, 「한국의류학회」, Vol.25, No.3, 2001
- 이민선, “가부장제도, 페미니즘, 포스트모던 페미니즘과 남성 패션에 표현된 남성성”, 「한국의류학회」, Vol.25, No.2, 2001
- 이민선, “권력과 남성 패션에 표현된 미적 이미지”, 「복식문화연구」, 제11권, 제2호, 2003
- 이민선, “남성패션에 표현된 성적 이미지에 관한 연구-19세기 중반 이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 Vol.6, No.6, 1999.
- 이봉덕·양숙희, “21세기로의 전환기에 표현된 패션의 미학적 특성(제1보) : 정성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Vol.26, No.11, 2002
- 정세희, “영화의상에 나타난 젠더(Gender) 정체성-1930년대부터 1990년대를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 정철선, “현대패션에 반영된 Dualism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 채수진·김혜연, “페미니즘적 시각에서 본 현대복식의 앤드로지너스 현상에 관한 연구”, 「복식」, 43호, 1999
- 하지수, “1990년대 절충적 기능주의 패션의 미적 가치”, 「복식」, Vol.52, No.5, 2002
- 하지수, “미국 패션디자인에 나타난 기능주의”, 「한국의류학회지」, Vol.26, No.9/10, 2002
- 현선진, “후기산업사회 서구적 남성복식에 표현된 유희성에 관한 연구”, 중

양대학교 박사논문, 1997

## 국내서적

- 강혜원, 「의상사회 심리학」, 교문사, 1995  
김성곤 外, 「(21세기)문화키워드 100」,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2003  
김영자, 「패션디자인」, 경춘사, 1992  
라사라교육개발원, 「패션용어사전(증보판)」, (주)라사라패션정보, 2001  
신혜원·최선형·이정순·이정옥·김희라, 「의복과 현대사회」, 신정, 2003  
오희선·박화순, 「의상디자인」, 경춘사, 1994  
이순홍 外, 「세계 복식과 패션 정보」, 교문사, 2002  
이은영, 「복식의장학」, 교문사, 1983  
조정문·권명수·이의수·이옥·이나영·정채기·Russell Feldmeier·Paul Kivel, 「남성학과 남성운동」, 동문사, 2000  
최재천, 「여성시대에는 남자도 화장을 한다」, 궁리출판, 2003  
현대패션100년 편찬위원회, 「현대 패션 100년」, 교문사, 2002

## 외국서적

Encarta Dictionary

- Gerda Buxbaum, 「Icons of Fashion the 20th Century」, Prestel, 1999  
Lisa Tuttle 著, 유혜련·호승희 譯, 「페미니즘사전」, 동문선, 1999  
Michael Flocker 著, 김정미 譯, 「메트로섹슈얼 가이드북」, 문학세계사, 2004  
Stuart Ewen 著, 백지숙 譯, 「이미지는 모든 것을 삼킨다」, 시각과 언어,  
Waltraud Posch 著, 조원규 譯, 「몸, 숭배와 광기」, 여성신문사, 2001  
1997



## 연속간행물

「Fashionbiz」 : No.187, No.198

「Collezioni」

「Fashion News」

「Vogue」

백유진, “고대 그리스로 향하는 남성미의 회귀”, Elle 한국판, 1997.10

스포츠투데이, 2002년 2월 19일

한국일보, 2002년 5월 16일

스포츠 투데이, 2003년 2월 19일

경향신문, 2003년 7월 30일

파리 AFP=연합뉴스, 2003년 12월 9일

조선일보, 2004년 1월 29일

서울신문, 2004년 2월 11일

한국일보, 2004년 6월 3일

문화일보, 2004년 6월 15일

매일신문, 2004년 7월 20일

조선일보, 2004년 8월 27일

서울신문, 2004년 10월 6일

## 기타

[www.firstview.com](http://www.firstview.com)

<http://100.naver.com.php?id=772622>

<http://salon.com/ent/feature/2002/07/22/metrosexual/>

<http://wordspy.com/words/metrosexual.asp>

조선명, “2004 S/S 남성복 상품 동향 분석”, 삼성디자인연구소

박정현, “메트로섹슈얼”, LG경제연구원

# ABSTRACT

## The Formative Characteristics of Metrosexual Design expressed on contemporary men's Fashion

Ko Dae-Hyub

Department of Clothing and Textile

Graduate School of Ch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 Jang Ae-Ra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fine the concept of metrosexual from a social/cultural perspective based on previous studies, and to consider the background, emergence, and reason for this designation. It will explore the formative characteristics of the concept and redefine metrosexual as it pertains to current fashion; it will analyze metrosexual design to aid in the understanding of men's clothing, design, and the changing patterns of men's fashion.

First of all, from a social/cultural perspective, a metrosexual male comfortably accepts women's tastes, yet keeps his male sexual identity. He may be considered self-centered, because he invests in himself unsparingly. The concept of metrosexual has emerged as a description of heterosexual men who invest time and money unsparingly in adorning themselves with clothes, fashion accessories, spa treatments, and other indulgences traditionally embraced by women. This concept was born of confusion over sexual identity, the breakdown of existing values, changes in perceptions of physical ideal beauty, pluralism, individuality, and lifestyle.

Therefore, the metrosexual design, a keyword of this study, can be defined as a natural and comfortable silhouette made of glossy or transparent material, such

as velvet or silk, that flows true to the body curve, contains feminine colors such as pink, yellow, green, red, orange, and purple, feminine prints of flowers plants, or masculine patterns of stripes or checks.

Based on this definition of metrosexual, deconstruction, sensuality, eclectic, and functional characteristics of fashion are inferred and coded. The results from analyzing and interpreting the metrosexual design are as follows:

First, sexual deconstruction accepts the variety of humanity instead of imposing a divisive value system or absolute definition of truth and beauty. Each field shows mutual penetration instead of individuality. These phases represent the cultural deviation and resistance to vagueness that exists in postmodern society. The blurring of traditional gender preferences inherent in metrosexual design deconstructs the dichotomy of male and female roles and makes stereotypical female images, such as x silhouettes, ornamental details (frill, ruffle, corsage), splendid colors, form-fitting materials, and feminine patterns (flowers, plants) acceptable for men. Metrosexuality been adopted by men's fashion to deconstruct, combine, and reorganize gender boundaries and allow men to express their "feminine" sides.

Sensuality is a means of expressing one's sexual charm. In addition to the traditional idea that men stare at women as objects of desire, now women also stare at men as sexual objects. This is a combination of sensuality and men's narcissism. The sensuality in the metrosexual design emphasizes men's sensuality and expresses physical beauty through direct or suggested exposure. Metrosexual fashion brings up sexual images by using the Cleavage Look, see-through materials (chiffons, gauze, lace, etc.) and thong panties.

To say that metrosexual style is eclectic does not mean that it includes an indistinct division of styles from various cultures, but rather suggests the tactful style mixing that comes from sufficient recognition of different fashions. Therefore, the eclectic design is the coded design that comes from the parallel use of objects or images that do not obviously go together and the adoption of different elements, use of different materials, and blurring of class and gender stereotypes.

Finally, the functional characteristic of metrosexuality is that different elements have different meanings for different operations. Simply put, it can be expressed as physical functions such as diversion, fitness, and convenience. As well, it combines psychological, social, and cultural functions. Therefore, the functional characteristic in the metrosexual design is not limited to a comfortable silhouette or mixing of natural and artificial fibers, but also natural and comfortable characteristics such as flowing silhouettes, elastic materials, and functional tote or cross bags that have psychological, social and cultural functions.

Men who prefer the metrosexual design represent new cultural trends in fashion and know how to express themselves positively.

It can be suggested that future studies on understanding men's fashion trends and images be done to present various designs in the current field of men's fashion.



## 감 사 의 글

시작이라는 설레임과 막연함이 어느덧 끝이라는 안도감과 후회스러움으로 밀려옵니다.

본 연구를 시작하며 끝을 맺을 때까지 도와주시고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써주시며 지도해주신 장애란 교수님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바쁘신 와중에도 멀리까지 오셔서 진심으로 논문을 심사해주신 이서희 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옆에서 따뜻한 격려와 조언을 해주신 권숙희 교수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저를 아껴주신 여러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저를 믿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신 가족에게도 감사드리며, 특히 옆에서 같이 해 준 선후배, 동기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든 나에게 힘과 도움을 준 사랑하는 친구들에게도 감사드리며, 이 논문의 결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2005년 2월  
고 대 협